환율 1500원대 위협…'유가 쇼크'에 금융시장 출렁

외국인 대량 매도에 코스피 5200대
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공포 확산

중동발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9일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고 코스피는 5200대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9.1원 뛴 1495.5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다. 대미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4월 9일 종가 1484.1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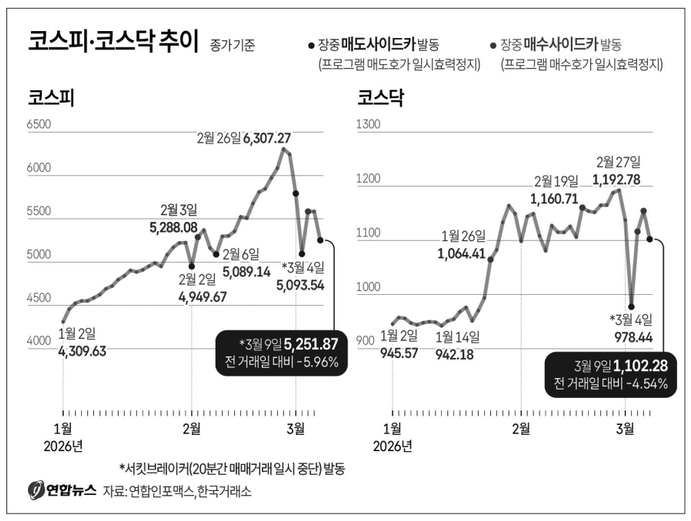
이날 환율은 16.6원 급등한 1493.0원으로 출발해 오전 10시 22분께 1499.2원까지 올랐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도 금융위기(2009년 3월 12일·장중 최고 1500.0원)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무려 6% 급락하며 5200대로 후퇴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333.00p(5.96%) 내린 5251.87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319.50p(5.72%) 내린 5265.37로 장을 시작해 낙폭을 키워 한때 5096.16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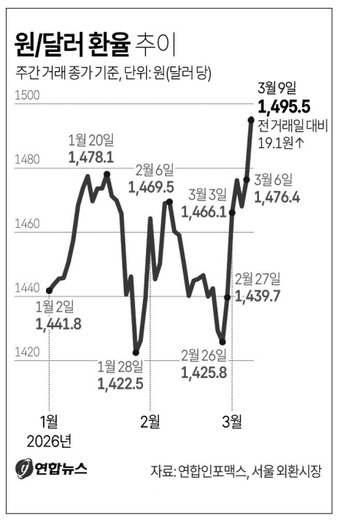
장 초반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락하며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세 번째다.



이어 오전 10시31분에는 지수가 전장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돼 코스피 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도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 만에 발동된 것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한 달 내 2번 발동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2063억원, 기관은 1조538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4조627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이날 7.81% 급락한 17만3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9.52% 내린 83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내며 현대차(-8.32%), LG에너지솔루션(-4.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3.17%), 삼성바이오로직스(-3.95%) 등이 떨어졌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58.19p(5.04%) 내린 1096.48로 출발해 52.39p(4.54%) 내린 1102.28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코스닥150의 선·현물 지수가 급락하며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5467억원 순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8억원과 5189억원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자 걸프 산유국들이 잇달아 감산에 들어가는 등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은행, 광주FC에 10억 후원…"2026시즌 선전 기원"

2023년 이후 70억 지원
지역스포츠 활성화 앞장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 홈 개막전에서 광주FC의 2026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참석해 지역 대표구단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광주FC의 메인 스폰서로서 202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념해 30억원의 후원금을 추가 지원하며 구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광주FC는 시·도민 구단 최초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구단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지역 구단의 국제무대 성과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올해 전달한 10억원을 포함하면 광주은행이 2023년 이후 광주FC에 지원한 후원금은 총 70억원에 이른다.

광주은행은 재정적 후원과 더불어 임직원의 참여를 통한 응원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홈 개막전에도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FC가 보여준 도전과 성장은 지역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며 "광주은행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응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FC가 더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 홈 개막전에서 광주FC의 2026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10억원을 전달했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도, 2억미만 매매·전월세 계약 대상…전입 신고 후 신청

전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히 중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 주택 소재지 시군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증명서와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해당 시군 부동산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30억 규모 특별출연 보증
전남신보-여수시 업무협약

광주·전남 아파트 낙찰가율 80%대 유지

여수시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여수시의 3억원의 특별출연을 재원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운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여수시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총 30억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 및 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또 보증료를 0.8%로 우대 적용해 비용절감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여수국가산단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수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더불어 전남도 및 여수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자금과 연계하면 2년 간 연 3~4%의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엄재용 기자

광주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3개월째 80%대를 유지했다. 전남도 7개월 연속으로 80%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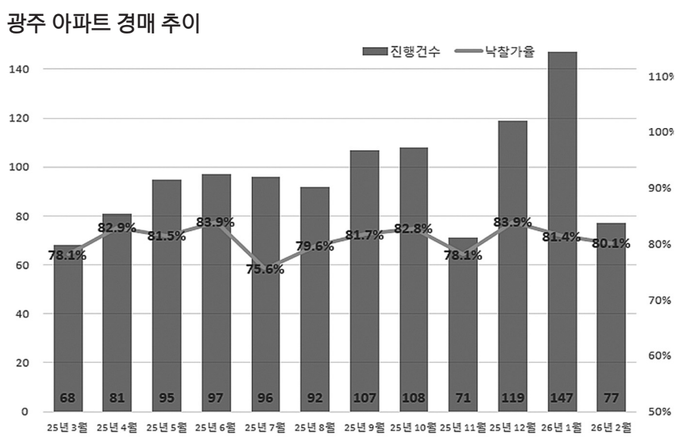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6년 2월 지지경매 동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77건 중 20건이 낙찰됐다. 지난 1월 147건으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경매 건수는 지난달 설 명절 영향으로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낙찰률은 26.0%에 그쳤지만 낙찰가율은 80.1%로 3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9.5명으로 지난 2023년 4월 1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남 아파트 경매 건수는 113건이고 낙찰 건수는 47건으로 낙찰률 41.6%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0.2%로 7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설 명절이 있어 경매 일정이 조정돼 진행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며 "광주의 경우는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3%p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80%대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명절 영향으로 경매 건수는 대폭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에 낙찰률 저조 '옥석 가리기'

이어 "다만 낙찰률이 저조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옥석 가리기가 지속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광산구 장덕동의 광주 수완 현진에버빌 2단지 경매 물건에는 27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95.7%를 기록하고, 광산구 선암동의 선운지구이지더원 3단지는 응찰자 24명이 경쟁해 낙찰가율 95.8%를 보였다.

전남 무안군 신동아파밀리에도 응찰자 24명에 96.2%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2248건, 낙찰률은 37.3%, 낙찰가율은 87.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국 27개 보증센터 보증 심사역을 대상으로 '2026년 신용보증 심사역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농신보, 신용보증 심사역 실무능력 강화

전국 27개 보증센터 대상 교육…영농철 보증 지원 체계 확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전국 27개 보증센터 보증 심사역을 대상으로 '2026년 신용보증 심사역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림어업인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건전한 보증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보증 관련 부실·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신용보증 제도의 이해 △보증 심사 시 유의사항 △시설자금 관련 주요 판례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보증 심사역의 실무 판단 능력을 높이고 균형 잡힌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묵 신용보증업무부장은 "영농철에는 농림어업인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적기 보증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증 신청 접수 단계부터 본인 확인과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 빈틈없는 심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